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주)커피미각

쓰레기 없는 '착한소비'... 사회적 가치 확산

쓰레기 없는 '착한소비'를 실천하며 카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재활용시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 위치한 (주)커피미각이 그 주인공.

2021년 '커피미각'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해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연필, 화분, 캔들, 키링 등을 제작하여 카페 공간 내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한 올바른 환경 문제 인식을 진행하는 등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과 가치실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주)커피미각 허동욱 대표를 만났다.

편집자주



청주 율량동에 위치한 (주)커피미각 전경.

재사용 · 생분해 가능한 제품 사용해 쓰레기 최소화

커피박 활용 물품 판매 등 '제로웨이스트' 개념 도입

Q.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주)커피미각을 오픈하기 전 '마실거다'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일반적인 쓰레기는 물론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 등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쓰레기들이 매일같이 발생했다. 이후 (주)커피미각 오픈을 준비하며 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인근 상점의 소개로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접하며 시작하게 됐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제로웨이스트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카페와 정부에서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현실화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주)커피미각은 단순히 컵과 빨대사용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장용기, 비닐, 포크, 나이프, 심지어 커피찌꺼기를 즉시 발생하게 되는 일반 쓰레기인 커피박(커피찌꺼기)까지 재활용하여 커피박 화분, 연필, 캔들 등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해 직접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최대한 지향해 실천한 것이 선정된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사업을 하고 계신지?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위해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의 대부분을 재사용과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

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흡인습 개념으로 카페 공간에서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제품 생산 과정을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부 단체들과 시행하고 있는 환경 캠페인 후원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Q.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제품의 가격과 손님들의 인식이 가장 컸다.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은 일반 물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3~5배

정도 높은 구매 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생두를 로스팅하며 단가와 인건비를 낮추는 등 비용을 절감하여 친환경 제품 구입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됐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손님들로 인해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실천을 알아줄 날을 위해 더욱 활발히 움직일 계획이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카페를 운영하며 가치 있는 소비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직원들 또한 우리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손님들에게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보탬이 되어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 활성화를 위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쓰레기의 배출량 최소화이다. 특히, 청주시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이를 위해 우리 카페의 솔선수범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카페와 지역에서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전파되길 희망한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제로웨이스트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내에 있는 다양한 제로웨이스트샵과 협업하여 문화를 대중화 시키고 제로웨이스트 물품 사용 독려와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카페들과 재사용이 가능한 컵 활용,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재활용 방법 공유 등을 통해 카페에서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2022 달라지는 제도 · 시책

신생아 200만원 바우처 · 수당까지... 복지정책 '집중'

충북도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8개 분야의 53개 제도 ·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가정양육수당(0세 5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15만원 지원에서 매월 20만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가 1식 7천원으로 인상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과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만 11~18세까지였으나 만 9~24세로 확대된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생애주기(출산, 퇴직, 질병 등)에 맞춰 전 도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정 · 축산 분야에서는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 수당이 신설된다.

환경 · 산림 분야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카페, 제과점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경제 · 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8천720원에서 9천160원으로 5.1% 인상되고, 생산적 일손 봉사 참여자 실비가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체육 · 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유 · 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이 1인당 매달 8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상향된다.

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본격 추진

저상버스 34대 · 특별교통수단 39대 도입...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도

충북도는 2022년도에 국비 18억 원을 포함,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시행,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상버스는 24대 구입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제작사 출고 지연으로 올해에서 이월하는 10대를 추가로 내년도에 총 3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은 18억 원을 들여 총 39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39대 가운데 10대는 순수 도비로만 지원하여 광역이동 전용 차량으로 운행되는데, 이는 10월부터 추진 중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 시스템' 구축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그간 충북도내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관할 시 · 군의 관내와 인근지역에 한정된 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5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시 · 군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접수 수단 및 회원 정보를 통합하고 전체 차량에 대한 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도내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동범위 확대에 따른 차량 부족 현상을 일부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이동 전용차량을 10대 도입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충북도는 올해 충북도의회와 함께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10월)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한 9대를 포함해 저상버스 33대 및 특별교통수단 13대 도입을 완료하는 성과를 이뤘다.

도 관계자는 "증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통해 움직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페 내 제로웨이스트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시와 면으로 만든 비누망과 천연수세미(왼쪽), 커피박(커피찌꺼기)을 활용하여 판매중인 커피 화분 · 캔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2022년생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온라인 신청 시작

‘복지로’·‘정부24’ 통해 신청 가능… 오는 4월부터 지급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양육 시 만 2세까지 월 30만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첫만남이용권’이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5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은 올해 태어난 아동이다. 가령 지난해 12월 31일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을 받지 못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은 첫째·둘째 등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신청할 수 있고,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단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만 2세가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

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이다.

부모는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 30만원의 현금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외에도 복지로·정

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수당·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아동수당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 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 지급돼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하세요”… 이용자 2배로 늘려

내달 4일까지 신청… 1인당 연 35만원

올해는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년보다 2배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달 7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illcard.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

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35만원의 재충전 기회를 올해 하반기에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에는 선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실(☎1600-3005) 또는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시·기초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담과 학습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수당 인상… 중증 2만원·경증 1만원

중증 장애아동 최대 22만원… 경증 11만원
“저소득 장애아동 1만6000명 혜택 추진”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중증	20 → 22만 원	7 → 9만 원	15 → 17만 원
	경증	10 → 11만 원	2 → 3만 원	10 → 11만 원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이 15년 만에 월 1~2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장애 정도와 수급 종류에 따라 2만~2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3만~22만원으로 오

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만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만~20만원에서 9만~2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재가 22만원, 시설은 9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7만원을 지원한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10만원에서 3만~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각 11만원, 시설 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3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된 것은 2007년 이후 15년만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181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1만 6000명의 저소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 돕는다

중증장애아 돌봄 대상 올해 4천명→내년 8천명 확대

올해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소득·일자리, 장애인 등록 절차, 건강·생활, 인권 등 5개 분야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3년간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을 한다. 복지부는 사업을 통해 지역별

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에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및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1만4천20원→1만4천800원)하고, 이용자 수는 9만9천명에서 10만7천명으로 늘린다.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9천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제공시간은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 대상도 올해 4천명에서 내년 8천명으로 늘

리고, 지원 시간 역시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일 경우 최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경증일 경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임금 수준도 월 182만2천원에서 191만4천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할 수 있는 장애 진단서 발급 범위도 기존 6개 유형(절단·신장·심장·호흡기·간·뇌전증)에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을 추가하고, 투석이 필요한 신장 장애인의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를 완공하고,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도 19개소에서 내년 39개소로 확대한다.

내년 9월부터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학대피해·장애아동 ‘전문가정위탁사업’ 실시

사회복지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 자격인 대상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달부터 학대피해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 가정위탁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전문가격을 갖춘 위탁부모(전문 위탁부모)가 학대피해 아동이나 2세 이하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돼 오던 전문 가정위탁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전문 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 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 보호대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비현연 아동을 3년 이상 가정위탁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가격이 필요하다.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시간의 양성교육과 가정환경조사를 받고 전문 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해당 시도, 인접한 시도, 전국 순으로 전문 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 위탁부모를 결정한다.

선정된 전문 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게 되며, 매월 전문 아동보호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문 위탁가정에는 위탁 아동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될 경우, 지원금이 아동 각각에게 따로 지원된다.

전문 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이나 대표번호(1577-1406)를 통해 할 수 있다.

휠체어 타고 안전하고 편하게 제주 여행하세요

장애인·노약자 위한 휠체어 길 안내 앱 시범운영

휠체어를 탄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는 이달 휠체어 길 안내 내비게이션 앱인 ‘휠내비길(가칭)’을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휠내비길 시스템은 휠체어에 고정밀 위성 길 안내 프로그램인 ‘위성측위시스템’(GNSS) 단말기를 장착하면, 휠내비길 앱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안내한다.

도는 시범 운영에 맞춰 제주돌문화공원 등 관광지 4곳에서 장애인협의체 소속 20여 명이 참여한 현장 검증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장 검증에서 휠내비길 앱은 1초 단위로 위치를 수신해 목적지까지 경사로, 계단 유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유무를 안내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앞으로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보완 후 3월 본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도는 본 서비스가 개시되면 도내 관광지 제주돌문화공원, 북촌마을해안길, 함덕서우봉해변 등 30곳에 단말기를 배치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누구나 기기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관광 홍보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특허청에 휠내비길 상표권도 등록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주관한 실증사업으로, 제주도는 국비 9억1천만원을 지원받아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충북복지넷
www.043w.or.kr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고용및직업

주거지원

보육및교육

의료및건강

요양및돌봄

정신및심리정서지원

문화및여가

권익보장및법률

일상생활지원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누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신년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생양충완의 한 해 되도록 혼신의 힘 다할 것”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민족의 기상과 용기를 상징하는 호랑이 해를 맞아 코로나19라는 역병을 물리치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여 164만 도민 모두 힘차게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임인년 새해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지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강호축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삼탄~연박구간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에 들어가며,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주도심통과 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에게 위로와 활력을 제공할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4→6개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운영, 국립소방병원과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 등 공공복지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소득안정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1,676명 중),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21개소→45개소)과 아동수당 지원(171억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강화와 청년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1,320명→1,500명),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2,900명)으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겠습니다.
일곱째, 도내 지역간, 농촌과 도시간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저를 포함한 1만 5천여 공직자 모두 생양충완(生陽忠完)의 한 해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안전 지키며 일상 회복 집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미래 신산업 적극 발굴·육성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공감복지 구현

이에 따라 충북은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는 “생양충완(生陽忠完)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시행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대상자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1,300억원),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업 활성화, 전통시장 상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등 어려운 서민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반도체, 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수소, 탄소중립, 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을 위한

신년사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

“기호상진의 자세로 흔들림 없는 의정 펼칠 것”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임인년(壬寅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마다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에 맞서 소처럼 우직하게 인내한 반면, 올해는 용맹함과 강인함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2년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합리적 견제와 균형 바탕

침체된 지역 경제 부양·온 함

사회안전망 구축... 도민 안정 최우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교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다 함께 노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는 고난을 힘겹게 버티고 계신 여러분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더욱 단단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도민께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백신 예방접종에도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들 비롯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도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지만 묵묵히 도민 안전의 최일선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펼치는 것도 과제입니다. 도내 모든 시·군마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 돌봄부터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 격차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 및 심리·정서적 결손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 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지 세심히 살피되,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다함께 만들어낸 성과들이 충북의 미래를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6대 신성장산업(바이오, 태양광·신에너지, 화장품·뷰티, 유기능, 신교통·항공, ICT 융합)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충북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청주 오창산단 일원이 전국 유일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됐고, 5월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전략 대상 지역에 청주와 음성, 괴산이 포함되는 남보가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착공,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6차로 확장,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과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기호상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러한 각오를 담아 신년화두로 ‘용맹한 기운으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충북 발전을 위해 나아가자’는 의미의 ‘기호상진(騎虎常進)’을 선정했습니다. 도의원 전원이 초심을 되새기며 11대 의회의 남은 여정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을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는 도민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변화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올 한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다 해도, 호랑이 같은 용맹함으로 극복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일상화된 상황 속

사회적 약자들 삶 점점 어려워져

변화를 기회로...

변화에 적극적 대응해야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점점 어려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을 보듬어 안고 가야 할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지난 2년간 잘 극복해왔듯이, 앞으로도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2022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 그동안 우리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 역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바뀐 그들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모습들 본인 위주로 변화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거적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혹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을 음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은 음지가 아닙니다. 열악한 현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저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공간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일하는 우리는 어쩌면 행복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복지국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리 행복한 환경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복지인프라가 갖춰져 있기에, 머지않아 복지국가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충북,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임인년 새해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이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아이의 출산 이후
엄마가 행방을 알 없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 미혼부
인 아빠가 아이의 출생신
고를 하는 방법이 있나.

A. 종전에는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인적사항을 통해 생모의
혼인관계와 국적이 확인되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혼
부가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 위
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 성 · 본 창설 및
가족관계 등록 창설 - 인지도소송으로 이어지
는 수차 레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의 충돌과 불법
적인 국적취득을 막기 위한 절차였지만, 이
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되었
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미혼부가 자녀의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가족관계 등록을 포기하여, 자녀가 의료보험
· 보육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자녀를 고아원
에 보낸 후 입양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기도 하
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
고, 2015. 11.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개정법에 따라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
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미혼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
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
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생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유(예 : 생
모가 출산 직후 자녀 유기하고 잠적 및 연락
무절)을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
는 자료와 혈연관계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유전자 검사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 등 · 초
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고, 관계자 ·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
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자를 심문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출생증명서 대신 그 확인서 등본을 제
출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동정

■ 단양노인복지관

▷기관장 최은하 / 21년 12월 22일자

■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문석우 / 22년 1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 · 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
랍니다. ※043-234-0840 김슬지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 · 한자 교육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

다사랑회는 2013년 충북사회
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
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코로나19로 매
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교육 봉사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삶의 원동력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에 임하도
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
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
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
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
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
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
234-0840~2) 또는 이메일
(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저소득층은 장애인 등록 신청하면서
진단비 & 검사비 지원사업
동시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저소득층 누구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확대

☎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신규 장애 등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21년 1월부터 진단비/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6월부터 동시 신청 가능
- (장애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대상자
※ 기간 도래 의무재판정과 장애연급 신청 등 서비스재판정 지원(조정/이의신청 제외)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진단비 지원	검사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총액 10만원 초과 : 10만원 · 총액 10만원 이내 : 검사비 총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추후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예정
- 제출서류 :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영수증
※ 신규 장애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확인 없이 정액 지급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만/평

공약

이창신 www.bokmani.com



#선거 #투표 #복지공약, 제대로 검증하고 투표합니다.

자원 봉사자 모집

▶초중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1.1 ~ 2.28
전화번호 : 043-288-9192

▶조리업무 봉사

관리센터 :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 1.1 ~ 2.28
전화번호 : 043-231-2676

▶건강검진 문진표작성 도우미 및 안내

관리센터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 1.1 ~ 2.28
전화번호 : 043-299-5734

▶장애아동 방학 프로그램 지원

관리센터 :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 1.1 ~ 2.28
전화번호 : 043-295-2505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 1.1 ~ 2.28
전화번호 : 043-216-1365

▶마을연구활동 봉사

관리센터 :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 21.12.1 ~ 22.1.31
전화번호 : 285-0102

▶밀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1.1 ~ 2.28
전화번호 : 043-211-4255

▶녹음도서 모니터링

관리센터 :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 1.1 ~ 2.28
전화번호 : 043-237-5544

▶유아성폭력예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 1.1 ~ 2.28
전화번호 : 043-216-1391

▶초등학생 돌봄교실 봉사

관리센터 :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1.1 ~ 2.28
전화번호 : 043-266-476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